

CHUKSAN News • 축산뉴스



Hanwoo News

한우소식

한우자조금사업 5배 이상 투자효과

소비 홍보 효과 가장 커... 1만원당 5만3700원 추가소득
한우농가 스스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한우자조금 사업이 2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 금액 대비 5배 이상의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최근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 연구결과에서 한우농가들은 한우자조금에 대해 8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78.1%가 사업 실효성도 뛰어났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만호가 넘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낸 한우자조금사업이 지난 2년간 평균거출률 81.8%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특히 한우소비촉진 광고효과 분석결과 투자이익율이 5.37로 나와 자조금에서 지출한 광고비 1만원당 평균 5만3700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한우자조금이 소비촉진 광고로 지출한 금액의 5배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우자조금을 이용한 광고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현단계에서 한우자조금사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 보고서는 자조금제도가 공익적 사업인 만큼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여부 이외에 원래의 의도대로 공명정대하면서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다른 각도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자조금사업을 원만하게 시행해 나가기 위해선 자조금 거출의 당위성과 자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고서는 농가거출률 100% 달성을 위한 노력과 유통감시단 및 한우판매점인증제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TV 및 라디오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한우소비촉진광고가 비교적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우소비촉진광고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라이브뉴스 양은실 기자, al@livesnews.com

【최종편집 : 2008년 1월 9일】

Poultry News

양계소식

친환경 닭고기 생산경쟁 본격돌입

하림·네오바이오 '프리미엄 닭고기' 생산 MOU 체결
하림 이문용 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와 네오바이오 유종철 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MOU를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국내 주요 육계 계열사들이 친환경 닭고기 생산에 나서 본격적인 친환경 닭고기 경쟁시대로 들어설 전망이다.

하림(주)과 네오바이오(주)는 지난 18일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생산을 위한 전략적 제휴 MOU를 체결했다.

하림과 네오바이오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을 기본으로 하는 '프리미엄 닭고기' 생산을 공동목표로 친환경 닭고기 제품의 대량 사육 및 공급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오는 2010년까지 2년 동안 네오바이오(주)에서 개발한 천연 신 물질인 항생제 대체제, 항바이러스제, 친환경 신물질 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료의 개발,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 시스템 구축, 국내·외 무항생제 닭고기 실태조사, 마케팅, 무항생제 농가 인증, 사육 기술 농가 교육 등을 공동 수행 및 신기술 연구와 개발을 공동 수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네오바이오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친환경 축산물은 소규모로 사육, 유통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기에 다소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MOU를 계기로 많은 소비자가 손쉽게 고품질의 친환경 축산물 닭고기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네오바이오는 지난 2003년부터 양계농가들을 대상으로 일반 육계에 대해 항생제를 투

여하지 않는 실험을 시작한 이후 5년 동안 질병 없이 건강한 닭을 키워내는 시스템 사육 방법에 성공을 하였고 특히 출원 중에 있다"며 "국내 최대 육계열사인 하림과의 MOU 체결을 통해 프리미엄 닭고기는 비싸다는 상식을 깨고 가격도 일반 닭고기에 비해 크게 비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친환경 축산물의 본격 대중화에 앞장설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육계계열업체 중에 마니커가 친환경 닭고기 브랜드인 '마미안'을 출시한 바 있으며 체리부로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함께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축산신문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8년 1월 23일]

Dairy Farming News 낙농소식

☞ "5년내 낙농 포기" 15%

낙농육우산업 관련 사육농 설문결과 살펴보니...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펴낸 '2008년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장경영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80%였으나 '1~2년 내 폐업'이 3%, '5년 내 폐업'이 12%로 나타나 전체의 15%가 5년 안에 폐업할 의사를 보였다.

이들이 낙농업 경영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환경문제가 28%로 가장 많아 정부의 환경 규제 및 지역 민원 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낙농업 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문제 외에는 '후계자 부재'가 19%로 뒤를 이었고 다음은 '건강문제' (14%), '부채문제' (13%) 등을 꼽았다.

CHUKSAN News

• 축산뉴스



운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 적절한 퇴·액비 관리는 앞으로 전체 농업계의 문제로 부상할 것”라며 “앞으로 낙농업계는 물론이고 경종농가 등과도 협력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민신문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최종편집 : 2008년 1월 23일]

Swine News 양돈소식

☞ 돼지등급 하락...품질관리 '비상'

최근 돼지의 육질이 떨어지고 있어 품질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과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하 돼지의 규격 등급은 A등급 비율이 전체의 36.7%를 차지해 전년도 같은 기간 37.3%에 비해 소폭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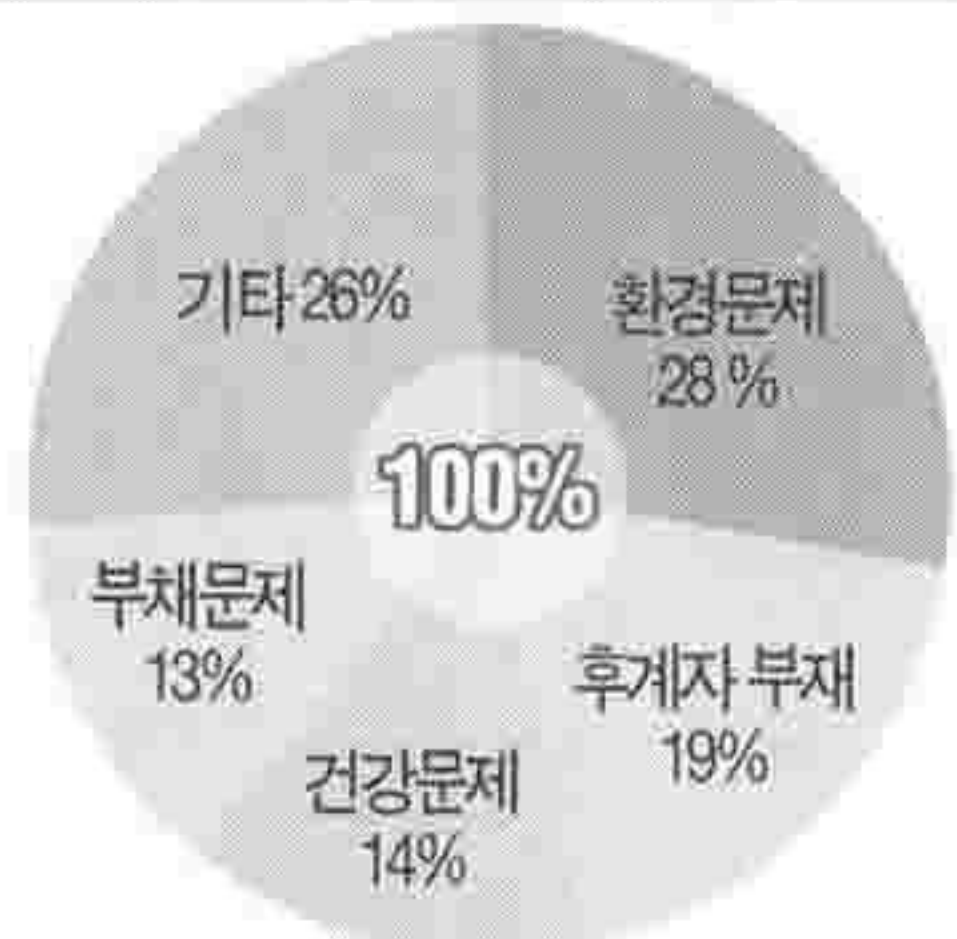
특히 육질 등급 출현율의 경우는 지난해 7월 공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겨우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돼지 품질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사양관리를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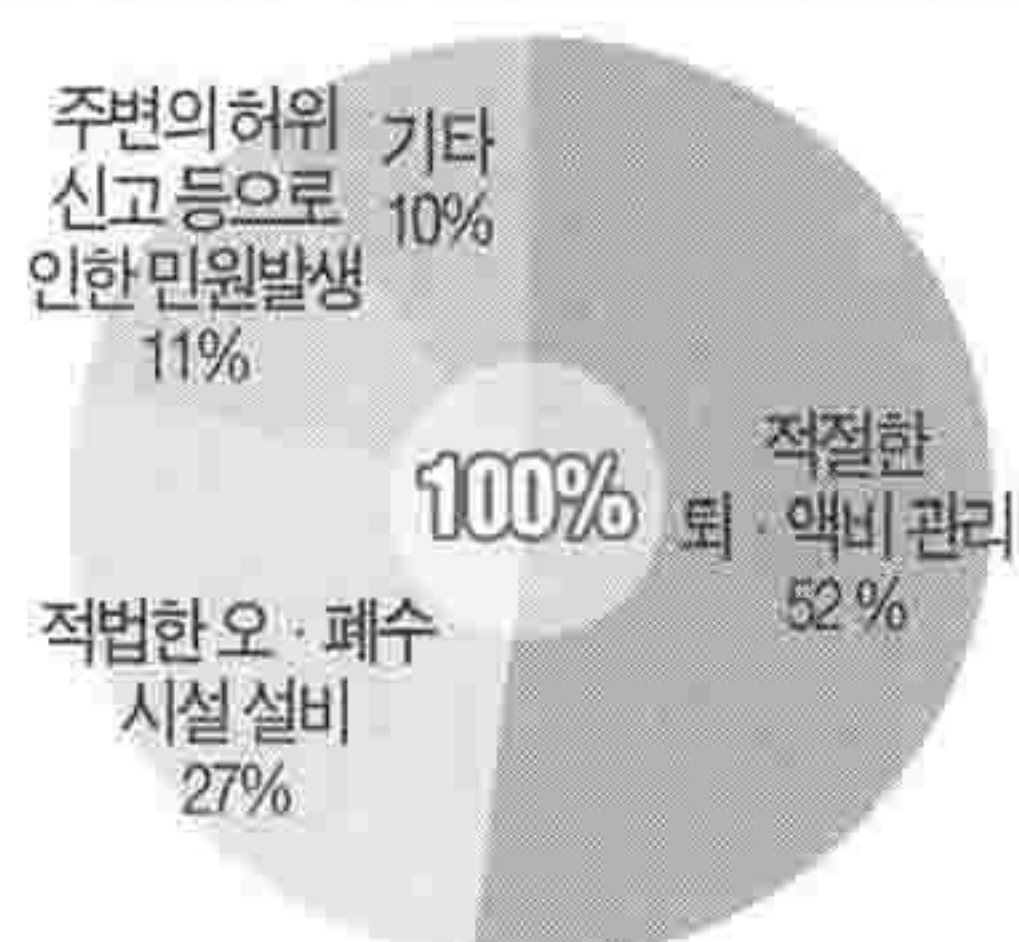
김육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경매실장은 “출하 돼지의 등급 하락은 결국 농가의 수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며 “품질을 차별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사양관리가 결국 생산성을 높이고 돼지의 품질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돼지의 품질향상을 위한 농장관리가 중요하다”며 “특정 매뉴얼에 따른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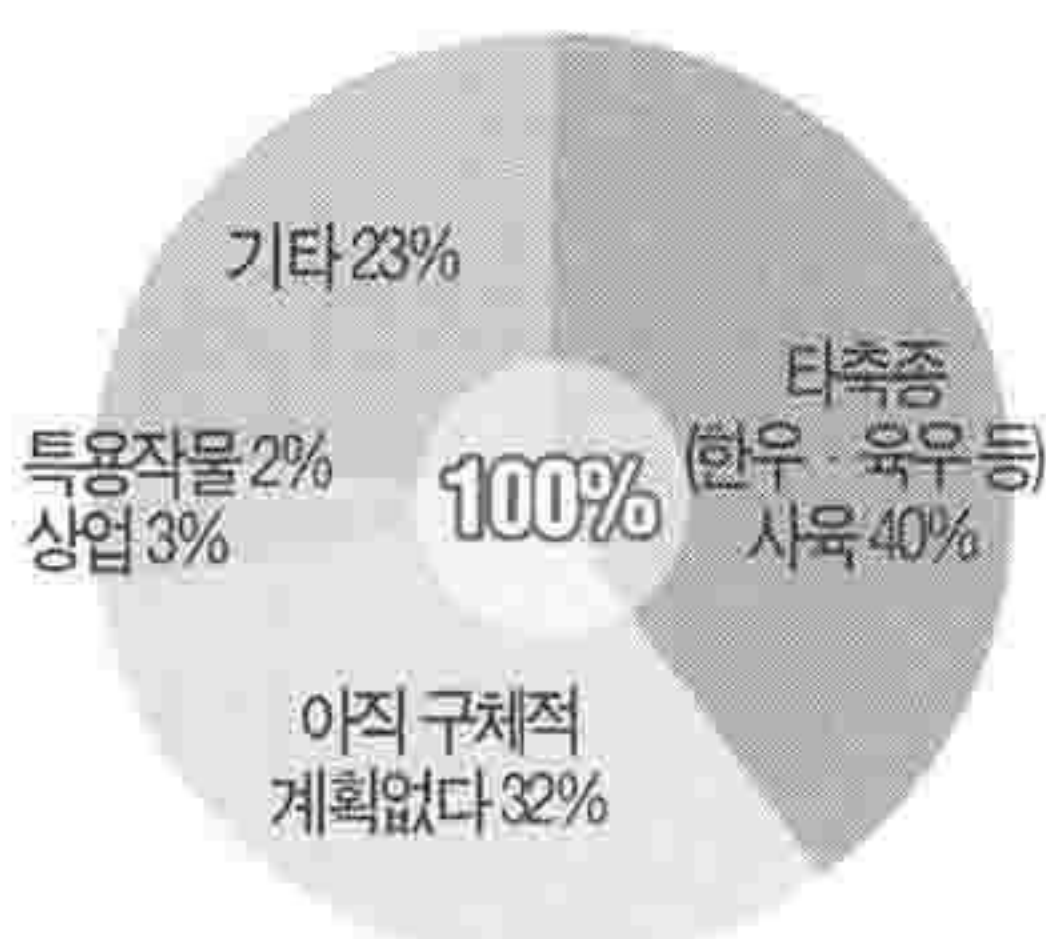
낙농업 경영 포기 이유



목장환경문제 중 가장 어려운 점



낙농 폐업 후 향후 생계 계획



특히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절반 이상(52%)이 ‘적절한 퇴·액비 관리’를 꼽았으며 ‘적법한 오·폐수시설 설비’(27%)와 ‘주변의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11%) 등도 낙농 경영의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낙농가들은 ‘낙농을 폐업하면 육우나 한우 등 다른 축종을 사육하겠다’는 응답이 40%에 이르렀으며 32%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낙농업 경영농가 수는 현재 8,000여명에서 향후 5년 이내에 6,700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의 관계자는 “낙농가들이 환경문제 가

지 사육 내지는 사양관리가 이뤄져야 돼지를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제값을 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수축산신문 홍동희 기자, smart73@afnews.co.kr

[최종편집 : 2008년 1월 23일]

Deer Breebers 양록소식

뉴질랜드·러시아 “한국 녹용시장 개방 하라” 압력

특소세 폐지 요구... 순록뿔 수출길 트려 전방위 로비도

국내 녹용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뉴질랜드와 러시아의 전방위적 압박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녹용을 수출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현재 수입 녹용에 7%가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철폐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뉴질랜드는 수입 녹용에 붙는 특소세와 관련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국내산 녹용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도 자국산 순록 뿔이 녹용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양국의 고위급 회담 등 외교채널을 통해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해 말 개최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러시아에는 500만마리에 달하는 순록이 사육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순록 뿔을 의약품인 녹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용도로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우리 정부 측에 순록 뿔과 녹용

의 차이, 순록 뿔을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할 태세여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록업계에선 만일 우리 정부가 수입 녹용에 붙는 특소세를 철폐하거나 러시아산 순록 뿔에 대해 수입을 허용할 경우 외국산 녹용의 국내 시중 유통량이 확대돼 결국 국내산 녹용값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양록농가 및 관련단체는 특소세 폐지와 순록뿔 수입 허용은 국내 양록산업을 뒤흔들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의 이 같은 요구에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광선 한국양록협회 부장은 “국내 녹용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의 압박이 갈수록 강화되는 등 국내 양록산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정부 당국의 대응에만 기대지 말고 자조금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농가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 류호천 기자, fortune@nongmin.com

[최종편집 : 2008년 1월 23일]